<개선 '97 : 화학산업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

경제위기와 한국재벌의 현주소

한국재벌들은 국가를 가난으로부터 건져내고 아시아 발전의 모델이 됐으나, 이제는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Economist는 최근「비틀거리는 거인들」기사에서『97년은 한국기업인들에게 무시무시한 해로 9개월동안 6개 재벌이 파산했고, 기아도 더이상 오래갈 것같지 않으며, 6개의 다른 재벌들이 위험 리스트에 올라 있다. 30대 재벌 중 13곳이 96년 손실을 보았으며, 현재의 추세로는 4000개 중견 또는 대기업들이 97년말까지 파산할 전망이다. 이것은 96년보다 2배나 많다. 경제성장은 느리고, 원화가치는 하락하며, 주식시장은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평했다.

한국경제 발전의 모델인 삼성, 현대, LG, 대우 등 4대 재벌은 자동차, 전자, 조선이 주업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내에서는 농업부터 신문사 운영까지 모두 참여하고 있다. 4대 재벌들은 한국 전체 매출의 47%, 수출의 절반을 떠맡고 있다.

어떤 재벌들은 현재의 고통이 경기사이클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 곧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걱정스럽게도 그들이 겪는 고통은 영원해 보인다. 재벌들은 빚더미속을 헤엄치고 있다. 170개 이상의 기업들이 자기자본의 500%가 넘는 빚을 지고 있으며, 300대 기업들도 평균치 400%를 기록중이다. 이것은 미국 대기업들의 평균치보다 3배나 높다. 외화부채도 지난 2년간 2배로 늘어났다.

성장하는 경제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급속히 쇠퇴하는데 있다. 한국 제조업의 임금은 이제 영국보다 30% 더 높고, 서울은 세계에서 3번째로 살기 비싼 도시가 됐다. 무력을 사용하는 노동조합과 해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률로 인해 종신고용의 전통은 지켜지고 있다.

재벌들은 10년간 17%의 매출증가율을 기록했지만, 간접 관리인력들은 19%를 늘렸다. 재벌들은 리스트럭처링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엄격한 노동법과 금융규제가 장애가 되고 있다고 비난한다. 반면, 정부관리들은 재벌들이 과대하게 팽창해왔으며 전문경영인들을 적극 채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혁은 거의 없었다. 96년 한국정부가 최후수단으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노동관련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대대적인 폭동에 직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계열사들이 각각의 경영실적을 속이고 자금을 지원하는 일을 막으려고 추진중이다. 더욱 급진적인 것은 금융규제이다. 은행들은 정부압력에 의해 매우 위험해보이는 대출을 해주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러나 바보같이 돈을 빌려준 은행을 파산시키는 일은 적어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98년초까지는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재벌들도 자신들을 채근하고 있다.『변하라, 변하라, 변하라』전경련 소속 한국경제연구원은 벽에 이같이 새겼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변화」는 자신들이 아니라 정부정책이다. 재벌 자신들은 자신들의 사업에 별로 잘못된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LG는 대담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기껏 자리에서 물러난 인력들을 퇴직시키거나 다른 유망산업으로 이전시키는 정도였다. LG 관계자는『우리 회장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우리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노동력을 자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재벌은 단일가족, 보통 설립자나 그의 아들에 의해 운영되는데,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초창기에는 한사람이 신속하게 모든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재벌은 너무 커졌다. 그리고 아들과 손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재벌 계열사들은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다. 유순한 한국의 주주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세법은 인수·합병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도 엄격히 금지돼 있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Economist가 지적한 내용들이 모두 맞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 경제전문지가 지적한「한국재벌에 관한 소고」는 놀라울 정도로 통찰력이 있는 논평이라고 평하고 싶다. 한국경제와 한국재벌, 그리고 한국 노동자들의 현실인식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유럽 컨설턴트의 말을 빌려, 『한국 재벌들이 아직은 절박감이 부족하다』면서 첨언한 다음 구절을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에게 다같이 뼈아픈 한마디가 될 것이다.

『한국재벌의 철학은 경영실적에 별로 관심이 없으며, 가족을 위해 부를 창출하는데 있다.』

<화학저널 1997/11/3>